

종합

정부, 신재생에너지·LED 등 지역마다 퍼주기

호남권 선도사업 힘빠진다

부처별 손발 안맞아 '5+2 광역경제권' 부실화 우려

정부 부처별, 지역별 무원칙한 첨단산업 추진으로 '5+2 광역경제권' 호남권 선도사업이 망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역별 과당경쟁을 차단하고 각 광역경제권 지역특화 전략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실현과 권역별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 '5+2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을 추진, 호남권 선도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부품소재 등 2개 분야를 지목했다.

핵심인 '고효율 저공해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소재산업 육성' 등을 세부 핵심 프로젝트로 구성했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광역경제권 구상과 배치되거나 조화되지 않은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하면서 지역간 원칙 없는 과당경쟁과 중복투자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7일 민주당 김재균 의원에 따르면 LED사업의 경우 대구·경북지역이 김천을 중심으로 LED 허브를 추진 중이며, 지식경제부는 이 지역에 LED-IT 융합산업화연구센터 구축사업비로 404억원을 지원키로 하는 등 힘을 실

어주고 있다. 또 최근 경남에서는 풍력부품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태양광에너지 산업과 연료전지 산업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우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에 확정된 발전종합계획도 지경부의 5+2 광역경제권과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종합계획 중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관련 인센티브 조류, 인센티브의 전액 새만금에 풍력, 충남 태안에 태양광 단지를 각각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단지를 경기 화성·시흥, 충남 태안, 전북 새만금 등에 세운다는 계획이다.

광역경제권 지역 중에는 새만금 한 곳만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포함된 것이다. 더욱이 국토부는 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경부와 협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당연히 호남에 지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지식경제부의 신재생에너지육성클러스터는 시·도별로 1곳씩 추천을 받아 5월말께 5곳을 선정,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이날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에서 "사실상 정부가 광역경제권 부실을 부추기고 있다"며 정부의 무원칙과 무능을 성토했다. "앞으로 모든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가 호남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지역기자 jkpark@kwangju.co.kr



7일 오후 광주시 서구 삼촌동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인권지표개발 시민공청회에서 광주발전연구원 김재철 박사가 '광주 인권지표 및 지수개발(안)'을 전문가 패널과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인권지표 158개 정했다

아동학대·여성화장실·체불 발생 등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시가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연대권·환경권·인권정책 등 5개 영역에서 158개의 예비지표를 선정했다. 이들 지표는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이달 말에 결정되며, 매년 재평가해 그 개선 여부를 시민과 외지인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7일 오후 광주시 서구 삼촌동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인권단체, 인권전문가, 관련 전문가,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고 인권지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광주발전연구원 김재철 책임연구원의 '광주인권지표 및 지수개발(안)'에 따르면 우선 단계별 세부지표로 시민적·정치적 권리 부문에서는 5대 범죄 발생, 아동학대, 행정투명도 등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부문에서는 실업률, 비정규직 노동자, 노사분규, 최저임금노동, 자살발생 정도, 무주택자 등이 거론됐다.

연대권 부문에서는 남여 임금 격차,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확보, 결식가게 개발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고 인권지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자 임금 체불 발생 등이, 환경권 분야에서는 사회적 약자 이동차량 도입, 녹지보유 정도 등이, 인권정책 부문에서는 공공기관 청렴 정도 등이 각각 꼽혔다. 전체 158개 지표 중 단기 실천지표는 116개, 중기과제는 17개, 장기과제는 25개로 분류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노미덕 광주장애인인권문제연구소 이사장, 채숙희 광주여성의전화 대표, 차선자 전남대 교수, 나영희 전 국가인권위원회 국장, 김재환 학생인권조례 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해 각 분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광주시는 이를 수렴해 수정·보완한 뒤 다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역기자 chadol@kwangju.co.kr

'도민과의 대화' 연기

박지사, AI 재확산 우려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도민과의 대화'가 조류인플루엔자(AI) 재확산 우려에 따라 연기됐다.

전남도는 '도민과의 대화' 일정을 애초 계획(9일~5월 3일)보다 늦춰 오는 17일부터 순방에 나서기로 했다

고 7일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던 고병원성 AI가 닭양과 고령의 오리 농가에서 추가로 발병하는 등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17일 영광·장성읍을 시작으로 5월 4일까지 22개 자치단체를 잇따라 순방, 도민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지역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김치 소믈리에 양성

김치 세계화 전문인력 필요

김치 복합테마파크인 광주김치타운이 광주김치의 세계화에 앞장 설 김치 전문가를 양성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김치타운 내 김치아카데미는 8일부터 '김치 소믈리에(Sommelier)'와 '김치 탑 셰프(Top Chef's)' 과정을 개설해 최고의 김치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

일 말까지 12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전라반지'를 비롯한 22종류의 김치 만들기 강의와 실습이 진행된다. 김치 탑 셰프 과정은 오는 4월초까지 5주 과정으로, 목은지 요리와 김치 톨 커플릿 등 김치 사양요리를 주요 교육과목에 편성해 김치요리 저변 확대는 물론 김치요리 전문점 창업에 필요한 실용적인 기술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 '감칠배기' 전국 롯데슈퍼서 판매

1년간 매달 60t 납품

광주에서 생산되는 명품김치 '감칠배기'가 전국 롯데슈퍼에서 판매된다.

광주시는 7일 "광주 김치타운 내에서 만들어진 감칠배기 김치를 앞으로 1년간 매달 60t(3억 5000여만원 상당) 전국 롯데슈퍼 230개 점포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지난 6일 1차로 12t을 출하했다"고 밝혔다.

롯데슈퍼에 납품되는 감칠배기는 광주 김치타운내에 들어선 (주)광주 김치감칠배기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 명품김치 '감칠배기'의 롯데마트 입점을 계기 삼아 광주김치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해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역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도심 푸르게 푸르게

시, 15일부터 30일간 봄맞이 식수운동 전개

광주시는 새봄을 맞아 도심 전체를 녹색 숲으로 조성하기 위해 '2011년 녹색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4월15일까지 30일간 가로변에 도시 숲을 조성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범시민 식수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지역별로는 동구 학생독립운동 기념회관 등 8곳에 5억원을 들여 담장을 허물고 나무를 심기로 했다. 또, 서문로 등 3곳에는 5억원을

들여 수벽(樹壁)을 조성하고 시청 뒤 덕흥2교 주변에는 경관형 도시 숲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동산초교 등 4곳에 2억원을 투입해 학교 숲을 만들고, 광주사랑의집 등 사회복지시설 4곳에는 3억원을 들여 복지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용봉저수지와 마복공원, 풍영정천 주변, 쌍암공원, 광주공원 등에는 26억원을 들여 편백나무와 느티나무, 팽나무 등 5만2000그루가 심어진 생태 숲을 조성한다.

자투리 공간을 활용, 녹색마을을 조성해 성과가 우수한 곳은 연말에 표창하고 모목 지원과 식재 기술 전수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17일 극락교와 어등교 사이 영산강 독일변에서 식목일행사와 함께 500여명이 참여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연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팝나무 등 8종 4000그루를 심게 되며, 참여한 시민들에게는 갈나무와 매화나무, 철쭉 각 500그루씩을 나눠줄 계획이다. 또, 다음달 초에는 시청 민원인 주차장 옆 공터에서 시민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바라기 2만평을 심어 꽃거리를 연출할 예정이다.

지역기자 redplan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Red Plane' (빛의만평) by Kim Jong-woo. It features a cartoon illustration of a person holding a sign that says '전지 자음범기정' and a speech bubble with the text '이 와중에 베개 베고 잠이오냐?!'.

Advertisement for 'National Public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raining Course' (국가공인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생 모집). It lists course details, dat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Korea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Advertisement for 'Balmok Pimp' (발목 펌프 운동봉). It promotes a product for foot health, highlighting its benefits and price.

Advertisement for 'SK Sambo Juice' (SK 삼보주유소). It promotes a car wash service and offers a discount on SK gas.

Advertisement for 'Shyker' (주)쉐이커스. It promotes mobile app development services and lists various app categories.